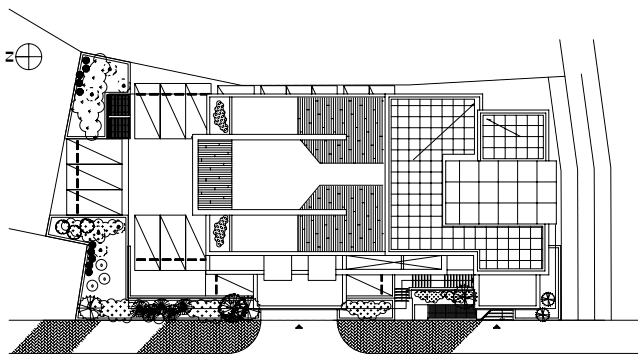


순복음새소망교회

Full Gospel New Hope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85-14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대지면적	971,75㎡
건축면적	520,31㎡
연면적	2,233,62㎡
조경면적	155,35㎡
건폐율	53,54%
용적률	156,75%
주차대수	22대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내부마감	바닥: 화강석, 벽: 내수합판 위 오크무늬목 천정: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쉬트, 베이스패널
설계담당	설계3팀(박병준, 김지훈)
사진	채수옥

교회가 현존하는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교회론의 개념이 없다. 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앙교백을 정당화하려거나 혹은 한 특정한 문제를 밝히기 위한 것들을 제외하고 개신교입장이 반영되어있는 교회론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거의 2000년 전에 생겨난 신앙의 가르침이 그 당시 시대를 대상화 했지만 또한 현재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신학자들도 앞다투어 교회에 관한 다양한 교회론을 주장하지만 일치된 교회론에 관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한국교회가 일치를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면에서도 나타난다. 이 문제는 교회건축의 개념정립에서도 혼란스러움

을 가져온다.

종교성으로서 상징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건축계획에 적용시켜야 하는가는 질문은 항상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신학자들의 다양한 교회론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 건축에 대한 개념적 교회론의 성경적 근거는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막공간의 형식성과 공간적 특징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 형식과 내용들은 개혁할 때 까지만 유효하다'라고 여기서 개혁은 영어성경에서 'New order'로 되어있고, 주해석서들을 보면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하신 사역의 총체성을 규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사역의 총체성







은 교육의 사역, 구제의 사역, 친교봉사의 사역, 예배의 사역 등이 될 것이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의 공간적 위계를 가지므로 결국 현대교회의 기능성은 교육, 봉사, 친교, 예배 등의 성서적 사명을 가장 잘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제공이 교회의 성격적 모형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종교건축공간의 형식성과 지나친 상징성은 이미 개혁 이전의 패러다임이었고 예수님 이후는 이부분이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특징적 사역중에서 문화사역을 들 수 있다. 리처드 니버는 '하나님 나라는 변혁된 문화이며 예수는 문화의 개혁자' 라고 했고 웨슬리는 '그리스도는 생활의 변혁자이다' 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문화적 열망을 성취시키고 진정한 사회기구를 회복했으며 문화안에서 인간을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회의 공간은 프로그램에서 교회구성원만을 위한 공간에서 지역주민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한다. 카페에서 차도마시고 영화, 연극, 콘서트가 주중 내내 열리며 예식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교육공간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관은 지역주민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부천순복음 새소망 교

회의 설계는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이 이점에 맞추어져 설계 되었다. 특상 옥상의 야외청소년 극장과 카페 등은 젊은이들의 활력적 공간이 될 것이다. 청소년 문제는 교회가 감당해야할 주요 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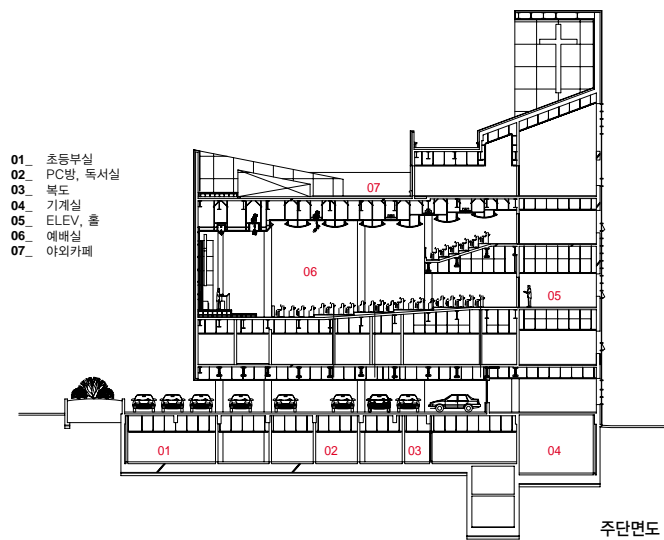
청소년이 겪는 집단속에서의 소외와 같은 현상, 즉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했듯이 사회구조속에서 자기와 빛같이 유사하지 않을때 토해버리거나 추출해버리는 앙트로포메타 현상과 같은, 우리청소년들이 고통받는 왕따 현상과 같은 비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편협성을 극복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교회가 사회와 유기적 관계그물망 없이 존속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교회건축 과정도 보면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편협성, 비기독교인이면 참여기회 조차도 잘 주어지지 않은 편협성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최초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건축과정에서 감독자들은 가나안 지방의 이방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즉 비기독교인이 성전건축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교회는 비교적 모든 과정에서 교회건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편협성을 극복하고 잘 진행되어진 교회이다. 반대로 사회도 교회를 굴절되고 왜곡된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기능적 모습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메타테제들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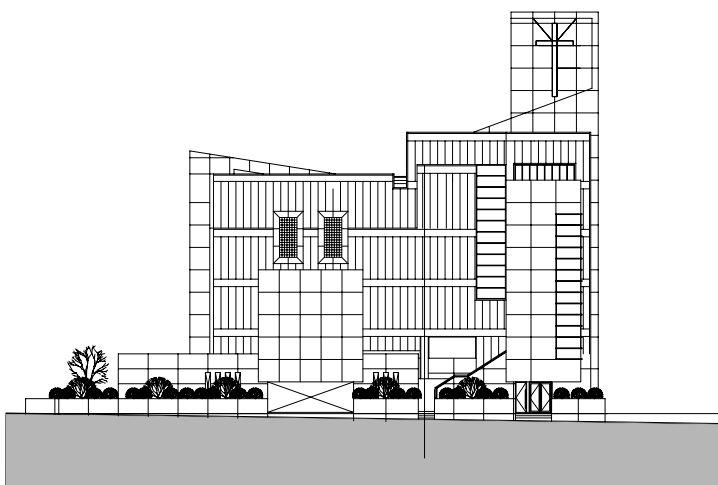


시대에 가장 시원적이며 심층적 진리 임에도 불구하고, 이시대의 철학이나 지적담론을 복속시키지 못하고 신학적 범주 내에서만 자보성의 형태로 공진되어지고 있는 현상, 타문화의 영역과의 관계에서 지적그물망(에 피스테메)에 상호 교류하지 못하고 타영역의 문화와 공존의 양태로 특이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공간과 프로그램이 문화적 양태로 전이되고 변환되어 신학적 범주 내에서 극복되어 사회적이고 에큐메니컬 영역으로 진화되어질때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진화되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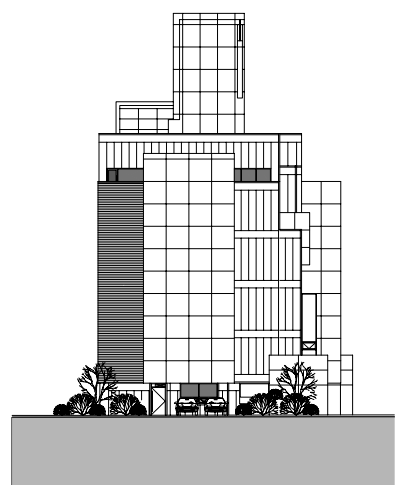
이 교회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설계과정에서 형태언어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교회는 빌딩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다' 라는 바울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현되는 형태는 인간적 척도에서 비롯되는 소담한 형태일 것이다. 많은 현대 교회가 권위자상주의적 불륨으로 한뼘이라도 높아야 되는 종탑 등 원시적 힘의 현현에서 비롯된 크라토파니적 상징체계를 극복하는 점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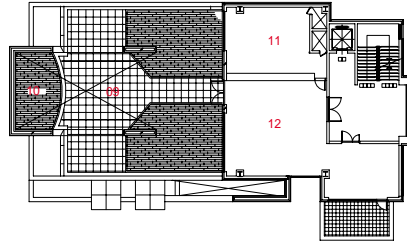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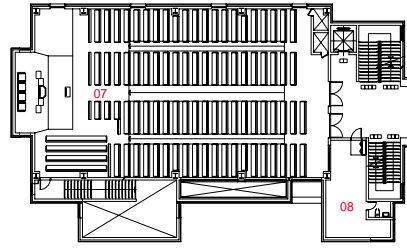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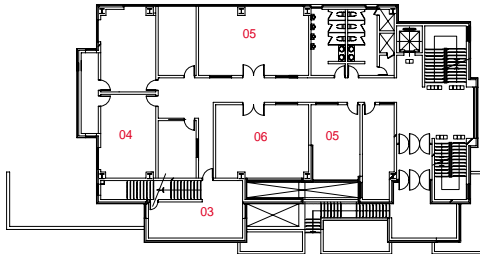
- 01. 주차장
- 02. 행정, 교회사무실
- 03. 성가대실
- 04. 담임목사실
- 05. 여성교실
- 06. 안수 및 제1,2남선교실
- 07. 예배실
- 08. 자모실
- 09. 야외카페
- 10. 야외무대
- 11. 주방
- 12.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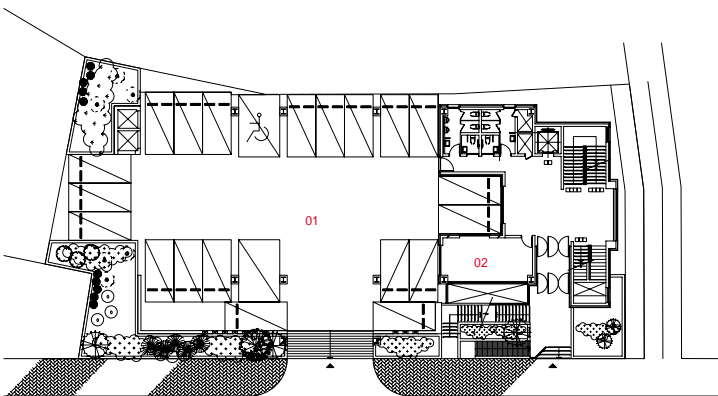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